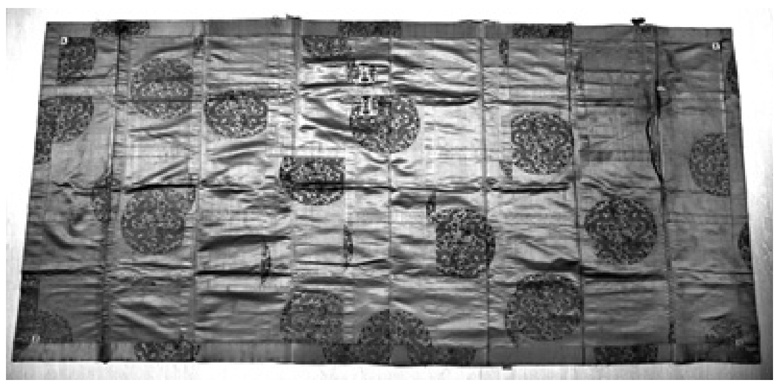
130년 만에 통도사로 돌아와

고종황제 하사 경운 대사 가사 특별전시
10월 한달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故 경운 대사의 가사.

故 경운 대사의 가사가 130여년 만에 통도사로 되돌아왔다.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9월 19일 통도사 주지실에서 재일교포 김건흥 씨(일본 동경)로부터 경운 대사의 가사 1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가사는 고종황제가 입고 있던 곤룡포로 직접 가사를 지어 통도사에 있는 경운 대사에게 하사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수연유가 적힌 글을 선친께 받은 뒤로 줄곧 이것은 통도사의 것이고,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유물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한 경운 대사 가사는 김건흥 씨가 부친 김정주 씨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해 온 것으로, 당시 서울 개운사 맹현우 스님이 가사를 조성했고, 경운 대사 입적 후 상좌인 최종호 스님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 이래 가장 큰 경사로 고맙고 눈물겨운 일"이라며 "통도사의 보물은 반드시 산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증자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며 영구히 성보를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운 대사 가사는 은사로 쌍용문을 시문한 홍색직물을 사용한 9조 가사로 일부 얼룩과 훼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구름과 연화, 범자를 배경으로 해와 달을 상징하는 토끼와 삼족오를 자수한 원형장식판이 부착돼 있다. 가사의 사방 모서리에는 상단에 天(천)자, 하단에 王(왕)자를 자수한 방형직물을 덧대어 사천왕을 표현했다.

특히, 견사에 은사를 말아감아 사용해 문양을 표현한 점과 연화만초(蓮花蔓草)를 배경으로 대각선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여의주를 물려고 하는 두 마리의 용을 표현한 점은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쌍용문직은가사(雙龍紋織銀袈裟, 중요민속자료 제244호)'와 상당히 유사하다.

통도사 성보박물 관장 지준 스님은 "동일한 직물로 부분적 차이가 있지만 가사의 구성과 자수기법 등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이 두 가사에 사용된 직물의 문양에 쌍용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이 직물 자체가 황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직물 및 의류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문화재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받은 가사를 제1366년 통도사 개산문화대재를 맞아, 10월 1일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 역사실에 전시해 일반에 특별공개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고증을 거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증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통도사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5회 청주 보살사 괘불탱특별전 개막에 맞춰 기증자 김건흥 씨에게 기증서 및 감사패를 수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중한 불교문화재의 기증·기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숨겨진 성보를 발굴하고 불교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5)382-1001

박지원 기자 hobit777@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고객과 함께 짐 나르며 나눔 실천"

거제자원봉사자센터 오정림 센터장

"이 상은 전법의 길을 걷고 있는 도반들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 앞으로 부처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가르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제9회 대원상 수상자로 포교대상 재가부문 장려상에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장 오정림 씨(36, 불명 대원성)가 선정됐다.

대원상(大圓賞)은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훈을 기리기 위해 불교의 현대적 조명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한 불자와 단체에게 매년 시상된다.

오정림 씨는 경남 거제시의 사회복지와 봉사 기관 및 단체의 인드라망인 자원봉사센터장 소임을 맡으며, 사단법인 좋은벗 이사, 미소금융 거제지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오 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사회 저변에서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3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의 대표 소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청년 불자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최근 문을 연 미소금융 거제지점은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사업으로, 대부분 이웃종교기관이나 종교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다. 불교계 최초의 미소금융으로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도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수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꼭 필요한 곳에 대출해주고, 성실한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고객과 함께 짐을 나르면서 나눔을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돈만 빌려주고 받는다면 사채업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잘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정림 씨의 어릴 적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어릴 적 공부를 잘했던 그녀는 방과 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같은 반 친구들을 가르쳤다. 자신의 도움으로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봉사하는 도반들과 사회복지사 동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기쁘다고 한다.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지만 오히려 배우는 점이 더 많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언젠가 도법 스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함께 길을 걸어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개개인은 어느 한 구석이 부족한 미완성의 존재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콩 반쪽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이란 없겠죠."

박지원 기자 hobit777@hanmail.net

국민 모두 지키는 불교문화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전통문화 속 불교문화' 세미나

응현 스님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 (주)태금정 회장)는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재조명'을 주제로 9월 23일 조계종 부산연합회교육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속에 깃든 불교의 정신문화를 되짚어보고,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보존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응현 스님(부산불교연합회 학술원장, 성암사 주지)의 '왜 불교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인가?'에 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희정 위원(문화재청 부산항 문화재감정위원)의 '한국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가치'와 최은령 위원(문화재청 김해공항 문화재감정위원)의 '한국의 불교전래와 불상의 조성' 등 주제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발표가 끝난 후 하만경 교수(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전 부산교수불자회장)를 좌장으로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희정 위원은 "우리나라 국보 총 308건 중 불교문화재는 절반을 훨씬 웃도는 173건, 보물 총 1573건 중 989건이 각각 불교문화재이며, 유네스코에 등재한 총 27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불교관련 문화재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직지심체요절 해인사대장경판 및 경판 영산재 등 총 6건에 이른다"며 "불교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hobit777@hanmail.net

사명 대사 열반 401주기 추모법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호국성사 사명 대사의 열반 401주기 추모대법회가 부산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개최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는 사명 대사 추모대법회를 9월 23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 대사 호국광장에서 봉행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호국의 대성(大聖)인 사명대사는 국가와 국민이 풍전등화로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하는 납자의 몸을 던져 왜장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적군을 퇴치해 나라와 민족이 안심입명케 한 영웅"이라며 "임진난을 승리로 이끈 서산대사, 사명대사, 기허대사 등 큰스님들의 큰 뜻을 기려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국정토로 만들자"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파계사 도로 단장

대구 팔공산 파계사는 올 2월부터 9억 예산으로 시작된 파계사 진입도로신 관계자 여러분과 그 동안 불 정비 불사 준공식을 9월 27일 마련했다. 준공식에는 파계사 조실 청운 스님, 주지 법광 스님, 이재만 동구청장, 최희철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장 외 사부대중 2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파계사 진입로는 기존 폭 4m도로를 6m로, 800m 구간을 새롭게 확장해 아스콘 포장과 사면 울타리에 대한 석축시공, 전신주 정비, 일주문 앞 교량정비, 차선도색 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주지 법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현장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원만히 준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파계사 사부대중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날 법회에는 환성사 주지 성담 스님과 금봉선원장 혜국스님 등 500여 대중이 보여 복원불사 낙성을 축하했다.

환성사 복원불사 봉행

16나한 이운대작불사 낙성법회도 함께

경북 환성사(주지 성담)가 복원불사 및 16나한 이운대작불사 낙성법회를 500여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9월 20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복원불사 경과보고와 주지 성담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후 혜국 스님의 법어와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공 고 문

재단법인 만봉불교재단은 불교문화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하여 설립되어 현재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8-1번지에 만봉사, 만봉불화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사로서 재단운영에 도움을 주셨던 등인스님(박인숙), 등원스님(이성옥), 청하스님(이희진), 정우스님(홍혜정) 스님이사분들이 2011년 7월 11일 재단 이사직을 함께 사임하였기에 재단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오며, 이에대해 불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올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에 말씀을 전합니다. 혹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하기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에 출연되었던 망경산사도 분리되어 본 재단과는 무관한 단체임을 공고하오니 불자님들에 혼동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5년(2011)년 9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8-1

재단법인 만봉불교재단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2 신원빌딩 7층 만봉불교재단 분사무소
| T E L : 02)333-5010 FAX : 02)333-9332
| 담당자 : 최광해 사무총장 010-8365-7595 / 최계식 사무장 017-744-5969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0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 東 佛 敎 儀 式 敎 育 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